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Vol. 24, No. 3, 85–94, 2013
http://dx.doi.org/10.6107/JKHA.2013.24.3.085

www.khousing.or.kr
pISSN 2234-3571
eISSN 2234-2257

베이비부머의 라이프스타일과 은퇴 후 선호하는 주거특성
- 재미 한인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

Baby Boomers' Lifestyles and Preferred Characteristics of Postretirement Homes
- With a Focus on Korean-American Immigrants -

김미희* 김석경**
Kim, Mi-Hee Kim, Suk-Kyung

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s and characterizes lifestyles and housing preferences of Korean-American Baby Boomers in the USA, and proposes future housing design and planning directions to meet their need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ne to September 2012 examining lifestyles and preferred characteristics of postretirement homes. We targeted Korean-Americans born from 1955 to 1963 in either Korea or the USA who currently reside in New York, Washington DC, Chicago, Dallas, Detroit, Lansing, Grand Rapids, and San Francisco. To analyze the 247 responses, we employed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one-way ANOVA, and crosstabs. Respondents preferred three-bedroom, single-family housing types with a size of 26-35 pyong, favoring city outskirts or suburbs over urban areas. Four groups having different lifestyle types were identified: innovators, believers, fashion experiencers, and makers. Housing preference differed depending on lifestyle types. The 'innovator' group desired homes 56 pyong or larger, while the other groups preferred 26-36 pyong. The four lifestyle groups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most of preferred housing features, community facilities, or indoor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Each group still showed slightly different preferences in some housing planning characteristics, which future planners can refer to when providing postretirement homes for them.

Keywords : Baby Boomers, Lifestyle, Postretirement Homes, Korean-American Immigrants
주 요 어 : 베이비부머, 라이프스타일, 은퇴 후 주거, 재미 한인

I.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최근 한국은 급속히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2010년 700만명 정도의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시작되었으며, 이 거대한 인구집단의 은퇴 및 고령화문제가 가져올 사회적, 경제적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외환위기 이전까지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며, 1980년대 말에는 주택수요를 급증시켜 주택 200만호 건설과 아파트 건설 붐에 기여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Lee et al., 2007).

이들이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들어서게 되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생활하고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은 어떠한지, 현재 어디서 살고 있으며 은퇴 후에는 어디서 누구와 거주하고 싶은지 등에 따라 선택하게 될 주거유형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베이비부머들이 살아가야 하는 노년기는 그들이 보고 자라왔던 그것과는 상이하게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Han et al., 2011). 또한 이들이 노년기를 맞이하면서 노후에 거주하고 싶은 주거환경과 주택유형의 선호는 향후 노인주택의 시장의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베이비부머에 대한 체계적 실증연구가 많지 않으며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의 라이프스타일이 어떠한지 노년기 삶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인구·가족구조의 변화,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주택 수요자의 요구가 점차 다양화 되고 있으며, 미래 주거요구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주택공급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주택수요자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개선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소를 포함하는 주거환경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생애주기, 변화된 가치관과 관습, 미의식, 커뮤니티 등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정회원(주저자, 교신저자),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 이학박사
**정회원, Michigan State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Ph.D.

Corresponding Author: Mi-Hee Kim,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 #77 Yongbongro, Bukgu, Gwangju, Korea. E-mail: mhk@jnu.ac.kr

이 논문은 2011년도 전남대 연구년 교수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구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동기적 특성이나 가치체계 등 심리특성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위한 변수에 관한 연구가 중요시되고 있으며(Yoon et al., 2007), 전체 소비자를 개별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각 집단이 보이는 라이프스타일의 특성을 기초로 그들의 구매행동을 파악하는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Kim et al., 2010).

따라서 현재 베이비부머의 라이프스타일을 통해 그들의 생활패턴과 주거선호경향을 알아보는 것은 향후 노인주택 실거주자의 삶의 방식을 미리 예측해 보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베이비부머의 라이프스타일은 그들이 노후에 선택하게 될 주택유형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 소비계층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노인주택의 상품개발에 이정표를 제시해 줄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택건설 산업은 세계시장으로 수출될 만큼 성장했고 주택건설업체는 해외교민들을 마케팅 대상으로 삼아 해외 판매를 기획하기도 하였다. 이는 외국에 거주하는 교포들이 귀국하여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하여 집을 구매하기도 하고 그 중 일부는 한국과 해외를 왕래하며 거주하기 때문에 주택마케팅 대상이 되는 것이다(HEESS, 2010). 그러나, 이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라이프스타일을 연구하고 이를 기초로 주택에 대한 요구를 제시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내 거주하는 한국인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은퇴 후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주거환경의 특성과 그들의 일반적인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며, 그 유형을 분류하여 선호하는 노후 주거환경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여 노후가 되는 10년 후 한국의 주택산업의 개발방향과 전략모색에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문헌고찰

1. 베이비부머와 주거선호

베이비부머는 특정시기에 출산이 집중적으로 증가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마다 그 시기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미국의 경우 1946년에서 1964년 사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후 1947년에서 1949년에 걸쳐 태어난 세대를 가리킨다. 한국의 경우는 한국전쟁 직후 출생아수가 급증한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부머라고 보고 있으며, 이들은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의하면 714만명, 총 인구의 14.6%에 달하는 수치이다(Kim, Lee & Yoon, 2010).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난 베이비부머들이 선호하는 구체적인 주택유형과 주택규모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베이비부머는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아파트에 거주하기를 희망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실시한 2005년 주택수요 및 주거실태조사에서 2년 이내 이사계획여부를 물은 결과 베이비부머의 12% 가량이 구체적인 이주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호하는 주택유형으로 아파트가 6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권혁진(2010)의 연구에서도 2005년 기준 베이비부머의 자가 보유율은 61%에 달하며, 현 주택유형으로는 아파트 거주비율이 48%가량으로 나타났다. 주택 규모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준비 소홀로 인해 그동안 축적했던 자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거나 자녀들의 분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형인 주택을 선호할 것으로 나타났다(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2009). 이러한 예측은 다른 연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신화경(2003)의 연구에서는 예비노인층이 희망하는 노후 거주 지역은 학력과 소득에 따라서 다르고 주택규모는 현재의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규모와 유사한 규모를 선호한다고 하였으며, 노후에 원하는 주택규모는 35평 내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층의 노후선호주거를 조사한 김미희(2006)의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반 이상이 노후에 희망하는 주택면적은 26-35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라이프스타일과 베이비부머

라이프스타일의 유형화와 이를 통한 시장 세분화의 개념은 1963년 레이저(Lazer)에 의해서 처음으로 도입 되었다. 라이프스타일은 집단별, 단계별, 사회별로 특이성이 있는 생활의 요소나 질에 관련되어 존재하게 되며, 각 라이프스타일 유형의 결과가 그들의 생활유형과 패턴에 동일하게 비춰지게 된다(Lazer, 1963). 라이프스타일은 각 개인의 주위환경 즉, 문화, 준거집단, 가족 및 소속사회 등의 영향을 받아서 습득할 뿐 아니라 개인의 가치 체계나 개성의 일부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각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은 바로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Sim, 2003에서 재인용).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분석은 효과적인 시장세분화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고, 소비자들의 생활상 변화 및 의식을 파악함으로써 소비행동이나 구매행동의 변화 등 사회적인 동향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Cho et al., 2001).

일반적으로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거시적 분석방법과 미시적 분석방법이 있는데, 거시적 분석방법은 어떤 사회가 하나의 집단체로서 갖는 특징을 알아보는 것으로 Yankelovich Monitor조사와, 라이프스타일의 이해를 통해 사회를 세분해 보고자 하는 미시적 분석방법으로는 VALS(Values and Life Style)과 AIO(Activities Interests Opinions), LOV(List of Values) 등이 대표적이다(Cha, 1992).

이 방법들 중 라이프스타일의 유형분류에 대한 연구인 VALS(Mitchell, 1999)는 자기경향의 두 가지 척도에 의해 미국 성인들을 8가지의 독특한 가치관과 생활양식으로 분류하였다. 8개의 집단은 실현형, 자족형, 확신형, 성취추구형, 노력형, 체험형, 실행형, 분투형이다. 이는 심리적으로 소비자의 가치관이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세분시장을 나누고 각 세분시장을 추적하고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김하나 외(2010)는 한국의

서울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의 라이프스타일을 VALS를 이용하여 5개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소비가치와 소비행동을 분석하였다. 5개의 집단과 분포를 보면 지위지향형 15%, 실현형 19%, 실행형과 확신형은 10%, 중립적 생활형 42% 등이었다.

최근에 서울 및 수도권의 40세 이상 60세 미만의 중년층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선호하는 노후주거 특성을 분석한 연구(Yoon et al., 2007)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 유형화를 위해 LOV법 측정을 이용하고, 그 결과 '개인적 자아추구형', '소극적 가족지향형', '적극적 자기개발형', '보수적 자기신뢰형', '외향적 대인중시형'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희망하는 노후의 주택크기와 주택유형에서 라이프스타일 유형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1955년과 1963년 사이에 태어나고 한국이나 미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으로서 뉴욕(New York), 워싱턴(Washington DC), 그랜래피드(Grand Rapids), 랜싱(Lansing), 디트로이트(Detroit), 시카고(Chicago), 달라스(Dallas),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서 생활하면서 종교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유의적인 표집방법을 이용하였다.

예비조사는 2012년 6월 30일에서 7월 7일 사이에, 미시간(Michigan)주 랜싱시(Lansing)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12년 7월21일부터 2012년 9월9일의 기간 동안 뉴욕과 시카고, 디트로이트, 랜싱, 그랜래피드 등의 도시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워싱톤, 달라스,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한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지인을 통하여 설문을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회수된 설문부수는 뉴욕 50부, 시카고 지역 76부, 랜싱과 그랜래피드 21부, 디트로이트 34부, 워싱턴 18부, 달라스 22부, 샌프란시스코 20부로써 총 254부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일부 누락되고 내용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를 제외한 247부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2. 조사도구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라이프스타일 분석에 사용된 설문도구는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미시적 분석방법 중 VALS(Values and Life Style)[1] 의 분석기법(Mitchell, 1999)을 토대로 연구자가 직접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은퇴 후 선호하는 주거특성은 주택특성, 커뮤니티 시설, 실내환경 계획특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주택특성은 주택규모, 침실 수, 거주지역, 주택유형으로 구성하였다. 주택규모는 스퀘어피트(ft^2)를 사용하여 분류하였다. 커뮤니티 시설은 도서관 등 11개의 시설, 실내환경 계획특성은 평면배치, 실 규모, 향 등에 관한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라이프스타일의 변인을 최소화하고 요인구조를 파악하고자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K-means 군집방식을 이용해서 군집을 추출하였다. 또한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선호하는 주거환경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응답자는 2012년 기준 만 49세부터 56세 사이의 베이비부머로서 응답자의 91.8%가 기혼자이고 60% 이상이 중산층이라고 응답하였다.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이 59.5%로 남성보다 약간 많았고, 직업에서는 자영업이 32.5% 단순노동이나 기능노동, 서비스직이 31.6%, 회사원이나 전문직이 26.6%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동거가족 수는 3-4명이 60% 이상이었다. 연평균수입은 50,000달러 이상 100,000달러 미만이 36.2%로 제일 많았고, 50,000달러 미만이 31.9%였고 100,000달러 이상은 30%가 넘었다. 응답자의 학력은 대졸이 48.8%, 대학원 이상이 18%정도로 고학력임을 알 수 있었다.

거주현황을 살펴보면, 위의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 이상이 단독주택에 거주하였고. 세입자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은 20%정도였지만 콘도미니엄 거주자 10.3%와 합하면 공동주택 거주자가 30%가 넘었다. 주택소유권을 살펴보면, 자가가 70% 정도로 가장 높았고, 주택규모로는 약 42평(1500 ft^2) 이하가 30% 이상, 약 42-84평(1501-3000 ft^2)은 25.8%, 약 84평(3000 ft^2) 이상은 25.4%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주택가격이 200,000달러 이상 300,000달러 미만인 경우가 27.4%로 제일 많았고 100,000달러 이상 200,0000달러 미만과 300,0000달러 이상 400,0000달러 미만은 각각 16.7%, 16.3%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거주자가 44.4%였으며 주변지역이 단독주택단지인 경우가 60% 이상이었다.

2. 은퇴 후 선호하는 주거특성의 일반적 경향

은퇴 후 선호하는 주거특성에는 주택특성. 커뮤니티시설, 실내환경 계획특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1) 은퇴 후 선호하는 주택특성의 일반적 경향

은퇴 후 선호하는 주택특성에는 살고 싶은 주택규모, 침실 수, 지역, 주택유형 등이 포함되었다. 은퇴 후 살고 싶

1) http://www.strategicbusinessinsights.com/vals/ustypes.shtml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247)

Category(Items)		n	%
Gender	Male	98	40.5
	Female	144	59.5
	Total	242	100.0
Job	Unskilled Laborer/Skilled Laborer/ Service/Etc	75	31.6
	Business Owner	77	32.5
	Private company employee/Professional worker/Government Official	63	26.6
	Unemployed or retired/Housewives	22	9.3
	Total	237	100.0
Educational attainment	High School or below	80	33.1
	Bachelor degree	118	48.8
	Graduate degree (Master or higher)	44	18.1
	Total	242	100.0
Number of household members	1	14	5.7
	2	52	21.1
	3	58	23.6
	4	93	37.8
	5 or more	29	11.8
	Total	246	100.0
Annual household income	Less than $50,000	74	31.9
	$50,000-$99,999	84	36.2
	$100,000-$149,999	39	16.8
	$150,000 or more	35	15.1
	Total	232	100.0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Current Homes* (N=247)

Category (Items)		n	%
Housing type	Single-family home	140	57.6
	Townhome	25	10.3
	Condominium	25	10.3
	Rental apartment complex	51	21.0
	Others	2	0.8
	Total	243	100.0
Homeowner ship	Owner	166	68.3
	Renter	70	28.8
	Others	7	2.9
	Total	243	100.0
Size of home	1,500 square feet or less (42 pyoung or less)	68	31.3
	Between 1,500 and 3,000 square feet (42-84 pyoung)	56	25.8
	3,000 square feet or larger (84 pyoung or larger)	53	24.4
	Others	40	18.4
	Total	217	100.0
Housing value	Less than $100,000	11	5.1
	$100,000 to $199,999	36	16.7
	$200,000 to $299,999	59	27.4
	$300,000 to $399,999	35	16.3
	$400,000 to $499,999	24	11.2
	$500,000 or more	42	19.5
	Others	8	3.7
	Total	215	100.0
Length of residency	Less than 1 year	19	7.8
	1year through less than 5 years	53	21.8
	5 years through less than 10 years	63	25.9
	More than 10 years	108	44.4
	Total	243	100.0
Adjacent environments to your house	Apartment complexes	48	19.8
	Single-family home neighborhoods	149	61.3
	Townhouse or low-rise condominium complexes	44	18.1
	Commercial and retail areas/Others	2	0.8
	Total	243	100.0

은 주택규모로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925.16 ft^2에서 1245.14 ft^2(26-35평)라고 응답한 비율이 30.3%로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은 25.6%의 응답자가 1280.99 ft^2에서 1601.24 ft^2(36-45평)를 선택하였다. 이 결과는 한국의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이전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Kim, 2006; Shin, 2003).

은퇴 후 거주하고 싶은 주택의 침실 수는 3개가 42.6%로 제일 많았고 침실 2개짜리 주택도 37%로 나타났다. 살고 싶은 거주 지역은 도시 근교 혹은 교외가 64.6%로 절반이 넘었으며, 상대적으로 도심지역은 19%로 낮았다. 살고 싶은 주택유형은 단독주택을 반 정도의 응답자가 선호하였고, 10층 이하 저층 콘도미니엄은 21.6%, 타운하우스는 20.7%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은퇴 후 선호하는 커뮤니티 시설의 일반적 경향

은퇴 후 커뮤니티 내 필요한 시설의 각 항목에 대해 1순위, 2순위, 3순위로 각각 응답하게 하고 1순위에는 3점, 2순위에는 2점, 3순위에는 1점, 선택 안하는 경우는 0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계를 낸 다음 평균에 대해 순위를 매겼다. 그 결과는 <Table 4>와 같으며 베이비부머가 가장 선호하는 시설은 공동취미실이었고, 2위는 체력단련실, 3위는 도서관, 4위는 라운지(휴게공간) 순이었다.

3) 은퇴 후 선호하는 실내환경 계획특성의 일반적 경향

내부특성은 각 항목에 대해 선호하는 정도에 따라서 4점 리커르드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베이비부머가 가장 선호하는 내부특성은 '효율적인 가사작업을 위한 부엌 공간'이었고 그 다음은 '충분한 수납공간'이었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평균 2.5 이상으로 선호도가 높은 편이었다.

3. 라이프스타일을 구성하는 요인들

라이프스타일 분석에는 VALS(Values and Life Style)항목을 직접 번역하여 총 35문항이 사용되었다. 먼저 라이프스타일의 항목이 어떤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분석 방법을 통해 요인을 추출하였고 고유 값이 1의 기준과 스크리 도표를 사용하여 요인 수를 결정한 후 요인의 적재량이 0.4

Table 3. *Preferred Characteristics of Postretirement Housing* (N=247)

Category (Items)		n	%
Desired size of home	Less than 889.58 square feet (Less than 25 pyoung)	37	15.5
	Between 925.16 and 1245.14 square feet (26-35 pyoung)	72	30.3
	Between 1280.99 and 1601.24 square feet (36-45 pyoung)	61	25.6
	Between 1636.83 and 1957.08 square feet (46-55 pyoung)	35	14.7
	1992.66 square feet or larger (56 pyoung or larger)	33	13.9
	Total	238	100.0
Desired number of bedrooms	Studio / Efficiency Unit	5	2.1
	1 bedroom unit	20	8.3
	2 bedroom unit	90	37.2
	3 bedroom unit	103	42.6
	4 bedroom unit	24	9.9
	Total	242	100.0
Desired area to live in (Where they want to live)	Urban area	45	19.0
	Urban Outskirts or Suburban area	153	64.6
	Rural area	36	15.2
	Others	3	1.3
	Total	237	100.0
Desired housing type (Low-rise=10 stories or less)	Single-family home	113	46.9
	Townhouse	50	20.7
	Low-rise condominium	52	21.6
	High-rise condominium	9	3.7
	Low-rise rental apartment	13	5.4
	High-rise rental apartment	3	1.2
	Others	1	0.4
	Total	241	100.0

이상인 되는 유의한 변수를 채택하였으며 직각회전 방법인 베리맥스(Varimax)방식을 통해 요인을 회전하였다. VALS의 35문항을 요인분석 한 결과 전체 35문항 중 10개가 제외되고, 총 25문항이 6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요인분석 결과와 요인의 명칭 및 해당문항은 <Table 6>과 같다.

Table 5. *Preferred Interior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Postretirement Homes* (N=247)

Interior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Frequency	Mean*	Standard Deviation
kitchen space helping efficient housekeeping work	239	3.16	.631
Installing the sink facing the living room	236	2.60	.729
Separating between the bathing area and the toilet	235	2.36	.791
South-oriented living room	238	2.89	.747
South-oriented kitchen and dining room	230	2.54	.733
South-oriented bedroom	232	2.61	.737
Ample storage space	237	3.01	.614
A large living room is more important than a large bedroom	240	2.91	.726
A large bedroom is more important than a large living room	234	2.17	.605

*4-point Likert scales used for the preference analysis.
Higher mean values show higher satisfaction levels.

개성자극추구, 지적추구, 실행추구, 유행추구, 보수성향, 종교성향 등의 6개 요인의 라이프스타일이 추출되었으며 총 설명 분산율은 56.1%였다. 요인 1은 '삶에 있어서 자극적인 즐거움을 추구한다', '다양한 삶을 추구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유값은 5.729로 전체분산의 22.9%을 설명하고 있다. 이 요인을 '개성·자극 추구(uniqueness and excitement-oriented)'라 명명하였다. 요인 2의 고유값은 2.224로 전체분산의 8.9%를 설명하고 있으며 '지적추구(intelligence and knowledge-pursuing)'라 명명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요인 3은 '실행 추구(practice-oriented)'로 요인 4는 '유행추구(trends and fashions-oriented)'

Table 4. *Preferred Community Facilities around Postretirement Homes - Ranking based on Weighted Values* (N=247)

Category	First rank		Second rank		Third rank		Weight (N=235)		
	n	%	n	%	n	%	Sum	Mean (S.D.)	Rank
Library	41	17.4	35	15.0	36	15.5	230	0.98(1.189)	3
Public [coin] laundry	6	2.6	5	2.1	3	1.3	31	0.13(.558)	10
Lounge (Rest space)	42	17.9	23	10.7	30	12.9	206	0.88(1.183)	4
Space for social gatherings or events	12	5.1	22	9.4	24	10.3	106	0.45(.873)	6
Community warehouse (or storage) for large objects	2	0.9	1	0.4	1	0.4	10	0.04(.317)	12
Common office for residents	6	2.6	12	5.2	18	7.7	63	0.27(.686)	8
Common hobby room	43	18.3	44	18.9	39	16.7	250	1.06(1.166)	1
Gym or fitness facility	37	15.7	46	19.7	35	15.0	241	1.03(1.158)	2
Swimming pool	11	4.7	11	4.7	7	3.0	61	0.26(.749)	9
Korean public bath and sauna	14	6.0	13	5.6	31	13.3	115	0.49(1.076)	5
Senior citizen center	15	6.4	18	7.7	6	2.6	87	0.37(.879)	7
Other	6	2.6	1	0.4	3	1.3	17	0.07(.443)	11
Total	235	100.0	233	100.0	233	100.0			

Table 6. *Analysis of Lifestyle Factors* (N=247)

Factors	Variables	Factor loadings	Eigenvalue	Error Variance
Uniqueness and Excitement Oriented	23. I like a lot of excitement in my life.	.731	5.729	22.9%
	3. I like a lot of variety in my life.	.628	5.729	22.9%
	9. I often crave excitement.	.579	5.729	22.9%
	31. I am always looking for a thrill.	.571	5.729	22.9%
	32. I like doing things that are new and different.	.512	5.729	22.9%
	2. I like outrageous people and things.	.476	5.729	22.9%
	17. I like trying new things.	.464	5.729	22.9%
Intelligence and Knowledge Pursuing	15. I consider myself an intellectual.	.790	2.224	8.9%
	14. I have more ability than most people.	.765	2.224	8.9%
	21. I like to lead others.	.621	2.224	8.9%
	1. I am often interested in theories.	.570	2.224	8.9%
	7. I like being in charge of a group.	.461	2.224	8.9%
Practice-Oriented	30. I like to make things with my hands.	.750	1.794	4.2%
	4. I love to make things I can use every day.	.705	1.794	4.2%
	11. I would rather make something than buy it.	.687	1.794	4.2%
	25. I like making things of wood, metal, or other such material.	.553	1.794	4.2%
	33. I like to look through hardware or automotive stores.	.464	1.794	4.2%
Trends and Fashions-Oriented	19. I like to dress in the latest fashions.	.826	1.578	6.3%
	5. I follow the latest trends and fashions.	.820	1.578	6.3%
	12. I dress more fashionably than most people.	.736	1.578	6.3%
Conservative-Oriented	35. I like my life to be pretty much the same from week to week.	.699	1.383	5.5%
	24. I must admit that my interests are somewhat narrow and limited.	.546	1.383	5.5%
	27. A woman's life is fulfilled only if she can provide a happy home for her family.	.521	1.383	5.5%
Religion-Conscious	6. Just as the Bible says, the world literally was created in six days.	.871	1.313	5.3%
	13. The federal government should encourage prayers in public schools	.800	1.313	5.3%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Varimax. Rotation made to get six factors.
Factor loading of 0.4 or greater on one more other factors presented The accumulated variance explained is 56.083%

로 요인 5는 '보수 성향(conservative)'으로 요인 6은 '종교 성향(religion-conscious)' 등으로 명명하였다.

4. 라이프스타일 유형화

도출된 라이프스타일 측정항목에 대한 베이비부머의 응답에 따라 이들은 최종적으로 4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군집 수의 결정은 군집들의 크기가 고르게 분산된 정도와 최종분석결과를 파악하여 군집들의 유사성이 최소화된 경우를 고려하였다. 비계층적 군집화 방법인 K-means 군집화 방법을 사용하여 균형성과 내용관련성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4개의 유효군집 수를 확정하였다. <Table 7>은 4개의 군집과 각 군집을 특정 짓는 대표적인 요인, 중심값(M) , 빈도(n) 및 군집간의 차이(F값)를 나타낸 것이다. 사후 검정(Sheffe test)을 통해 평균의 차이가 유의한 정도에 따라 a, b, c, d, 등으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각 군집의 해당빈도와 평균정도를 비교하고 라이프스타일 항목들의 상관도를 고려하여 대표성 있는 요인을 토대로 군집명을 '혁신형(innovators)', '보수확신형(belivers)', '유행체험형(fashion experiencers)', '실행형(makers)' 등으로 명명하였다. 명명시 VALS의 8개 유형의 특성과 이름을 고려하여 유사한 이름을 정하였다 (Mitchell, 1999).

군집 1은 다른 군집에 비해 지적추구성향은 높게 보수성향은 낮게 나타나 '혁신형'이라 명명했으며 응답자의 13%를 차지해 응답자의 비중이 제일 적었다. 군집 2는 다른 군집에 비하여 보수성향은 높게 지적추구성향은 낮게 나타나 '보수확신형'이라 명명했으며 응답자의 17%를 차지하였다. 군집 3은 다른 군집에 비하여 유행추구성향이 높고 실행추구성향이 낮게 나타나 '유행체험형'이라 명명했으며 응답자의 비율이 43%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군집 4는 실행추구성향과 종교성향이 높고, 유행추구 요인은 낮게 나타나 '실행형'이라 명명하였으며 응답자의 27%를 차지한다. 재미 한인 중 베이비부머의 라이프스타일을 살펴본 결과, 유행추구가 강한 '유행체험형'이 제일 많았고 실행추구성향이 높은 '실행형'이 삼분의 일 정도로 나타났다.

5. 라이프스타일 유형 집단별 사회 · 인구학적 특성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유형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여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t-검증과 교차분석(cross tab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사

Table 7. *Cluster Analysis Depending on Lifestyle Factors* (N=247)

Lifestyle Groups	Uniqueness and excitement-oriented		Intelligence and knowledge-pursuing		Practice-oriented		Trends-fashions oriented		Conservative		Religion-conscious	
	M	Sheffe	M	Sheffe	M	Sheffe	M	Sheffe	M	Sheffe	M	Sheffe
Group 1 (n=31, 13%)	-.651	b	.731	a	-.393	b	.064	ab	-.962	d	-1.208	b
	Innovators											
Group 2 (n=42, 17%)	.463	a	-.874	c	-.310	b	-.088	ac	.605	ab	-.886	b
	Believers											
Group 3 (n=107, 43%)	.009	a	.024	b	-.263	b	.476	ab	.032	ac	.377	a
	Fashion experiencers											
Group 4 (n=67, 27%)	-.004	a	.180	ab	.796	a	-.735	d	.015	ac	.513	a
	Makers											
F-value	8.022***		20.703***		25.401***		26.697***		17.739***		66.591***	

***p<.001

Table 8.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Lifestyle Groups*

Category (Items)		Innovators n(%)	Believers n(%)	Fashion Experiencers n(%)	Makers n(%)	Total
Gender	Male	13(43.3)	16(38.1)	27(26.0)	42(63.6)	98(40.5)
	Female	17(56.7)	26(61.9)	77(74.0)	24(36.4)	144(59.5)
	Total	30(100.0)	42(100.0)	104(100.0)	66(100.0)	242(100.0)
	t-value			23.985***		
Job	Unskilled Laborer/Skilled Laborer/Service/Others	6(20.7)	15(37.5)	30(28.8)	24(37.5)	75(31.6)
	Business Owner	6(20.7)	17(42.5)	33(31.7)	21(32.8)	77(32.5)
	Private company employee/Professional worker/ Government Official	13(44.8)	5(12.5)	30(28.8)	15(23.4)	63(26.6)
	Unemployed or retired/Housewives	4(13.8)	3(7.5)	11(10.6)	4(6.3)	22(9.3)
	Total	29(100.0)	40(100.0)	104(100.0)	64(100.0)	237(100.0)
	χ^2			13.630		
Annual household income	Less than $50,000	6(21.4)	15(39.5)	35(33.7)	18(29.0)	74(31.9)
	$50,000-$99,999	10(35.7)	9(23.7)	36(34.6)	29(46.8)	84(36.2)
	$100,000 or more	12(42.9)	14(18.9)	33(31.7)	15(24.2)	74(31.9)
	Total	28(100.0)	38(100.0)	104(100.0)	62(100.0)	232(100.0)
	χ^2			8.039		
Educational attainment	High School or below	3(10.3)	20(50.0)	37(34.6)	20(30.3)	80(33.1)
	Bachelor degree	19(65.5)	15(37.5)	54(50.5)	30(45.5)	118(48.8)
	Graduate degree (Master or higher)	7(24.1)	5(12.5)	16(15.0)	16(24.2)	44(18.2)
	Total	29(100.0)	40(100.0)	107(100.0)	66(100.0)	242(100.0)
	χ^2			14.370**		

**p< .01 ***p< .001

회인구학적 변인은 성별, 학력 등이었다. 지적추구가 높은 '혁신형'의 직업특성은 전문직이 많았고 고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학력의 대부분이 대졸 이상이었다. '보수확신형'은 직업은 자영업자이거나 단순노동근무자가 많았으며, 주로 저소득의 고졸 이하 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유행을 추구하는 '유행체험형'은 대부분이 여성이었고 주로 자영업자로 구성되어 있었고 대졸인 경우가 많았다. 실행을 추구하는 '실행형'은 주로 남성이었고 중간소득의 단순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6. 라이프스타일 유형 집단과 은퇴 후 주거선호

라이프스타일 유형 집단에 따라서 은퇴 후 주거선호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 변인은 주택특성 중 주택규모뿐이었고 주거지역, 침실 수, 주택유형들은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9>에서 보면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은퇴 후 살고 싶은 주택규모에 있어서 '혁신형'은 56평 이상을 다른 집단에 비해 선호하는 경향이 많았고, '보수확신형'은 26-35평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유행체험형'과 '실행형' 도 26-35평을 제일 선호했다. 응답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은퇴 후 주거선호에 있어서 '혁신형'은 56평 이상의 큰 규모의 주택을 선호하는 반면 다른 세 집단은 26-35평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커뮤니티 시설은 5순위까지만 차이분석을 하였는데 커

Table 9. *Preferred Characteristics of Postretirement Housing Depending on Lifestyle Groups*

Category (Items)		Innovators n(%)	Believers n(%)	Fashion experiencers n(%)	Maker n(%)	Total n(%)
Desired Size of a House	Less than 889.58 square feet (25 pyoung)	2(6.9)	7(17.1)	14(13.6)	14(21.5)	37(15.5)
	Between 925.16 and 1245.14 square feet (26-35 pyoung)	5(17.2)	16(39.0)	32(31.1)	19(29.2)	72(30.3)
	Between 1280.99 and 1601.24 square feet(36-45 pyoung)	9(31.0)	7(17.1)	27(26.2)	18(27.7)	61(25.6)
	Between 1636.83 and 1957.08 square feet(46-55 pyoung)	1(3.4)	7(17.1)	17(16.5)	10(15.4)	35(14.7)
	1992.66 square feet (56 pyoung) or larger	12(41.4)	4(9.8)	13(12.6)	4(6.2)	33(13.9)
	Total	29(100.0)	41(100.0)	103(100.0)	65(100.0)	238(100.0)
	χ^2			29.683**		
Desired Number of Bedrooms	1 bedroom unit	1(3.4)	1(2.4)	10(9.9)	8(12.1)	20(8.4)
	2 bedroom unit	12(41.4)	14(34.1)	38(37.6)	26(39.4)	90(38.0)
	3 bedroom unit	11(37.9)	22(53.7)	41(40.6)	29(43.9)	103(43.5)
	4 bedroom unit or larger	5(17.2)	4(9.8)	12(11.9)	3(4.5)	24(10.1)
	Total	29(100.0)	41(100.0)	101(100.0)	66(100.0)	237(100.0)
	χ^2			9.378		
Desired area to live in (Where they want to live)	Urban area	8(29.6)	3(7.5)	25(24.5)	9(13.8)	45(19.2)
	Urban Outskirts or Suburban area	15(55.6)	31(77.5)	65(63.7)	42(64.6)	153(65.4)
	Rural area	4(14.8)	6(15.0)	12(11.8)	14(21.5)	36(15.4)
	Total	27(100.0)	40(100.0)	102(100.0)	65(100.0)	234(100.0)
	χ^2			10.663		
Desired housing type	Single-family home	15(51.7)	18(42.9)	45(43.7)	35(53.0)	113(47.1)
	Townhouse	7(24.1)	12(28.6)	17(16.5)	14(21.2)	50(20.8)
	Condominium (own) or Rental apartment complex	7(24.1)	12(28.6)	41(39.8)	17(25.8)	77(32.1)
	Total	29(100.0)	42(100.0)	103(100.0)	66(100.0)	240(100.0)
	χ^2			6.800		

**p<.01

Table 10. *Preferred Community Facilities Depending on Lifestyle Groups*

Category		Innovators (N=28) M(S.D.)	Believers (N=42) M(S.D.)	Fashion Experiencers (N=100) M(S.D.)	Makers (N=65) M(S.D.)	Total (N=235) M(S.D.)	F
Community facilities	Library	1.25(1.295)	.88(1.041)	.88(1.225)	1.08(1.177)	.98(1.189)	.957
	Lounge (Rest space)	.68(1.090)	.86(1.260)	.99(1.176)	.80(1.188)	.88(1.183)	.660
	Common hobby room	.79(1.067)	.98(1.047)	1.07(1.191)	1.23(1.235)	1.06(1.166)	1.056
	Gym or fitness facility	1.14(1.239)	1.19(1.292)	.95(1.114)	.98(1.111)	1.03(1.158)	.545
	Korean public bath and sauna	.57(1.069)	.74(.989)	.48(1.267)	.31(.748)	.49(1.076)	1.431

뮤니티 시설이나 내부특성에서도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10>과 <Table 11>을 보면 F값이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별로 선호하는 커뮤니티 시설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전문직이 많고 학력이 대부분 대졸이상인 '혁신형'은 다른 시설에 비하여 도서관에 대한 선호도가 제일 높았고 체력단련실에 대한 선호도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자영업자이거나 단순노동자가 많은 '보수확신형'은 다른 시설에 비하여 체력단련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유행추구 성향이 높은 '유행체험형'은 공동취미실에 대한 선호가 다른 시설에 비하여 높은 편이었다. '실행형' 또한 공동취미실에 대한 선호와 도서관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시설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라이프스타일 집단별로 선호하는 실내환경 특성을 살펴보면, 집단 간의 차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통계적으로 다소 차이는 나타났으나 유의적이지 않았다. <Table 11>에서 살펴보면, '혁신형'은 효율적인 가사작업을 위한 부엌공간, 남향에 거실 배치, 충분한 수납공간, 넓은 침실보다는 넓은 거실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실내환경 특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보수확신형'은 충분한 수납공간, 효율적인 가사작업을 위한 부엌공간, 남향에 거실배치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실내환경 특성보다 높은 편이었다. '유행체험형'은 다른 실내환경 특성에 비하여 효율적인 가사작업을 위한 부엌공간, 충분한 수납공간, 남향에 거실배치, 넓은 침실보다 넓은 거실을 중요시하였다. '유행체험형'의 경우에는 '거실과 마주보도록 싱크대 설치'나 '남향

Table 11. *Preferred Interior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Postretirement Homes Depending on Lifestyle Groups*
(N=247)

Interior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Groups*	Frequency	Mean	F
Kitchen space helping efficient housekeeping work	1	29	3.28	2.484
	2	42	3.00	
	3	101	3.26	
	4	67	3.07	
	Total	239	3.16	
Installing the sink facing the living room	1	29	2.38	1.561
	2	41	2.63	
	3	99	2.69	
	4	67	2.54	
	Total	236	2.60	
Separating between the bathing area and the toilet	1	29	2.24	.509
	2	42	2.40	
	3	99	2.41	
	4	65	2.31	
	Total	235	2.36	
South-oriented living room	1	28	2.96	1.274
	2	42	2.86	
	3	101	2.98	
	4	67	2.76	
	Total	238	2.89	
South-oriented kitchen and dining room	1	26	2.54	.604
	2	40	2.58	
	3	98	2.59	
	4	66	2.44	
	Total	230	2.54	
South-oriented bedroom	1	27	2.52	1.114
	2	42	2.50	
	3	99	2.71	
	4	64	2.56	
	Total	232	2.61	
Ample storage space	1	29	2.90	1.109
	2	42	3.05	
	3	99	3.08	
	4	67	2.94	
	Total	237	3.01	
A large living room is more important than a large bedroom	1	29	2.86	1.611
	2	42	2.88	
	3	102	3.02	
	4	67	2.78	
	Total	240	2.91	
A large bedroom is more important than a large living room	1	27	2.22	.495
	2	42	2.12	
	3	98	2.21	
	4	67	2.12	
	Total	234	2.17	

*1, Innovators; 2, Believers; 3, Fashion Experiencers; 4, Makers

에 침실배치'와 같은 비교적 새로운 실내환경 계획시도에 대해 다른 집단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실행형'도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가사작업을 위한 부엌공간과 충분한 수납공간 계획에 대하여 선호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미국에 장기간 거주하여 생활양식이 서구화된 한국인 베이비부머의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여 유형을 파악하고, 라이프스타일 유형의 집단에 따라 은퇴 후 거주하기를 선호하는 주거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재미한인 베이비부머들은 은퇴 후에 규모 26-35평 정도의 침실이 3개이면서 도시근교와 교외지역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이 거주하는 커뮤니티 시설로는 공동취미실, 체력단련실, 도서관 등을 설치하기 원하고, 주택내부에는 효율적인 가사작업이 가능한 부엌과 충분한 수납공간을 선호하였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재미한인을 대상으로 고령친화주택을 개발할 경우에는 교외지역의 침실 3개 정도의 효율적인 부엌을 고려한 수납공간이 충분한 단독주택을 기획하고 아울러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공동취미실과 체력단련실 및 도서관 등의 계획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베이비부머의 라이프스타일은 '혁신형', '보수확신형', '유행체험형', '실행형'의 네 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가장 많은 응답자가 '유행체험형'임을 확인하였다.

지적추구가 강하고 보수성향이 약한 '혁신형'의 구성원은 대졸 이상이 많았고 다른 세 집단과는 달리 주택규모가 큰 주택을 선호하였다. 보수성향이 강하고 지적 추구성향이 낮은 '보수확신형'은 대부분의 학력이 고졸 이하였으며 '혁신형'과는 달리 주택규모가 작은 것을 선호하였다. 응답자가 가장 많았던 '유행체험형'은 유행추구성향이 강하고 실행추구성향이 약했으며 구성원의 대부분이 여성이었고 대졸이 많았다. 이 유형 역시 '혁신형'과는 달리 주택규모가 작은 것을 선호하였다. 응답자의 비중이 두 번째로 많았던 '실행형'은 실행추구성향이 강하고 유행추구성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성원의 주로 남성이었으며 '혁신형'과는 달리 주택규모가 작은 것을 선호하였다. 따라서 주택건설업체는 '혁신형'을 위해서는 규모가 큰 주택을 계획하고 다른 세 유형을 위해서는 규모가 작은 주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라이프스타일에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자가 네 집단으로 분류되어 이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주거선호에 있어서 주택규모 이외의 종속변수와 커뮤니티 시설이나 실내환경 계획특성에 대한 선호에 있어서, 네 집단 간에 유의

적인 차이가 없음을 파악하였는데 이는 라이프스타일 유형이 커뮤니티 시설이나 주택내부특성에 대한 차이를 변별하는 변수로서는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단,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는 않으나, 네 개의 라이프스타일 집단별로 선호하는 커뮤니티 시설이나 실내환경 특성은 파악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차후 커뮤니티 시설이나 실내환경 계획특성에 대한 베이비부머의 선호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더불어 사회인구학적인 변수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표집방법의 제한점으로 인하여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재미 한인 베이비부머라는 특수집단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국내 대상자와는 달리 이민 혹은 유학이라는 동질적인 배경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한국의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재미한인의 유형과 비교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미한인을 대상으로 차별화한 마케팅을 위한 고령친화주택의 개발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라이프스타일의 유형 집단에 따른 은퇴 후 선호하는 주택특성이나 커뮤니티 시설 및 내부특성 같은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주거생활지원서비스 같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와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Chae, S. (1992). A Study of Lifestyle following a Systematic Analysis Framework. *Journal of Consumer Studies, 3*(1), 46-63.
2. Han, K., & Timmermann, S. (2011). *Korean Baby Boomer in Transition.* The Final Report. Funded by MetLife Mature Market Institute.
3. Housing Environment Education Study Society (HEESS). (2010). *Planning and Evaluation of Housing Environment,* Kyomunsa, P.150.
4. Jo, J., & Kim. H. (2001). Consumers' Information Search Behaviors Depending on Their Lifestyles,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3*(1), 35-61.
5. Kim, H. (2009). *Life Style with Consumer Values and Consumer Behaviors of Baby-Boom Gener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Ewha Womans, Seoul.
6. Kim, H., Lee, Y., & Yoon, H. (2010). The Study on Housing Characteristics Preferred by Babyboomer after Retirement.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1*(5), 83-91.
7. Kim, M. (2006). The Preference of Housing for the Elderly among the Middle-aged Households for Aging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17*(1), 117-125.
8.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2009). The Effects of the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and Household Wealth on the Housing Market. *Housing Finance Monthly.*
9. Korea Labor Institute. (2005).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10. Kwon, H.(2010). Baby Boomers' Retirement and Future Policy Directions. *Monthly KRX,* 1-3.
11. Lazer W.(1963), *Lifestyle Concepts and Marketing, Toward Scientific Marketing*. AMA
12. Lee, S., Son, K., JI, D., & Park, C. (2007). *Policy Directions and Implications accommodating the Changes in Real Estate Market Condition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Report.* NO. 2007-39 Gyeonggi: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13. Shim, S., & Park, J. (2004). The Study on the Advertising Effectiveness of Several Media and Lifestyles.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15*(2), 7-33.
14. Shin, H. (2003). A Study on the Planning for Future Elderly Living of Middle Aged Women.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14*(4), 31-38.
15. Strategic Business Insights (2013). *US Framework and VALS Types*. www.strategicbusinessinsights.com/vals/ustypes.shtml.
16. Mitchell, V. W. (1999). Consumer Perceived Risk: Conceptualizations and Models.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33*(1/2), 163-195.
17. Yoon, C., Kim. H., Shin, S., & Kang, J. (2007). A Study on the Lifestyle Tpes of the Middle Ages and Senior Housing Characteristics.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18*(4), 9-15.
18. Yoon, J., & Park, J. (2010). A Study on the Dwelling Style by Lifestyle of Middle-aged Married Women.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1*(4), 81-82.

접수일(2013. 4. 25)
수정일(1차: 2013. 6. 11)
게재확정일자(2013. 6. 20)